고맙고 소중한 십대여성인권센터 후원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조진경 대표입니다.
그동안 건강하신지요? 하시는 일들도 다 잘 되시는지요?
지난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센터 모두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에도 붉은 말의 활기찬 기운을 받으시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라시는 대로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작년이 된 2025년 한 해동안 우리 센터는 새 사무실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센터에 들어와 본 아동·청소년들과 그들의 보호자들, 우리 센터 상담원들과 지원단 여러분들, 외부 방문자들은 "인테리어도 바뀌고 더 넓어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 '편안하다,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는 상담실이 하나여서 동시간대에 여러 이용자가 오면 한 명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는 오픈되어 있는 중앙 테이블 또는 7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상담실 3개와 넓은 교육장까지 생겨서 더 많은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층 넓어진 로비에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역사와 전문성이 한눈에 들어와, 이곳을 찾는 이해관계자와 아이들에게 깊은 신뢰를 전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십대여성인권센터 직원들뿐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집니다." 라며 한결같이 기분좋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센터는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 센터의 CI와 영문명을 'Stand Against Child Sexual Exploitation'으로 변경하여 국제 사회에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알렸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성매매는 성착취다.' '아동·청소년을 범죄 가담자로 보지 말라.', '처벌하지 말고 보호하라' 고 우리 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하며 법개정 운동을 이끌었고, 결국 2020년에 모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법이 바뀌게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5년이 지났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원인으로 바라보며 여러 가지 변형된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그런 정성으로 가해자들을 붙잡으면 안될까? 가해자들에게 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고, 온라인상에서 수사관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여 대기하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걸어오는 수많은 그루밍 성범죄자들을 사전에 발견, 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노력이 무용지물 같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넋놓고 신세한탄하고 있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엄중하여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1. 성적 목적 대화 처벌법, 일명 그루밍 처벌법에 미수규정이 없다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위장·함정수사를 못한다는 핑계가 되어 왔는데, 25년 4월에 미수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김남희 의원실과 추진하여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5년 11월부터 경찰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 대화를 주도하는 성범죄자들을 위장·함정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기소의견으

로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2. 그동안 우리 센터는 그루밍 수법으로 접근하여 사진,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그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성착취하고,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끝없이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가해자를 잡아 5년, 10년의 처벌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포된 사진, 영상 때문에 삶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의 눈물과 좌절을 지켜보면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어 영국의 세계적인 삭제지원 기관인 IWF와 협업하는 기회를 만들어 냈고, 25년 하반기부터 장기 미삭제 영상들이 하나둘 지워지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IWF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었습니다.
3. 우리 센터는 2024년 9월,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년 한 해동안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그루밍 행위가 의심되면 신속히 제보하였고, 카카오 측에서는 확인과정을 거쳐 이용 정지 등으로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신종 금칙어와 범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업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우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25년말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운영정책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카카오톡 서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포함한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카카오 측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여러 나라들의 플랫폼 운영자들에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고맙고 소중한 후원자님들,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10년의 길을 열어가려 합니다.
- 법개정 후에도 법적용이 잘되지 않고 있고, 사회적 변화도 미미한 상황에서 교육콘텐츠 다양화, 콘텐츠 내실화, 찾아가는 교육 등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강화,
- 디지털 성범죄가 국경을 넘어 일어나고 있고 더욱 심각해질 상황에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법률 개정, 지원체계 구축 등 성공의 경험은 아시아권역의 공통의 표준모델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 보며,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아시아정보센터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늘 따뜻한 지지와 든든한 지원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후원자님들, 앞으로도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후원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illegible] 올림